

2017년 9월 17일 “찾아오신 예수님(42) 내가 그니라”(요 18:1-11)

<도입>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인간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으로 채워진 참 인간됨을 보이십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1] 고난: 인간에게 불리하고 고통을 주는 상황

인생과 역사 속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은 그치는 법이 없고, 또 계속 여파를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상처는 쌓이고 인간은 아파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풀 수 없는 고난을 인류가 서로 노력/협력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욕구 중 최고봉은 죽음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은 그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노초를 발견했을 때 뱀에게 빼앗기고 그는 죽음을 없애는데 실패합니다.

히브리대 교수(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인류)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의 생명 공학의 발전을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혁명의 과정을 거친 인류가 죽음을 없애려는 노력도 몇 세기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생명을 무한 연장할 수록 좋은 일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은 발전과 혁신의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이백 년 넘는 동안 일어난 과학 혁명은 18세기 후에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하여 전기 발명, 컴퓨터/인터넷 통신의 혁신, 그리고 오늘 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융합 기술의 발전(생명 공학 포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발전과 혁신은 경이롭지만 좋은 영향만 끼치지 못했습니다. 혁신적 교통 수단과 무기(과학) 발전으로 말미암은 죽음과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량 살상도 가능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위협은 침명적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과 발전이 편리함과 효용성을 높여 주지만,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이웃이 베푸는 관심과 사랑, 실패해도 의연하게 도전하는 모습, 성공했을 때에 겸손한 성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성취와 발전은 잠깐 기뻐할 뿐, 그 다음 바라는 성취에 또 쫓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의 모든 고난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료 인간들이 모두 동의 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입니다.

[2]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시작되는 본문에서 그분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셨을 때 가롯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여기서 **고난을 자원하는 한 자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자원할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나 됨’으로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의 나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 후에 ‘나의 나 됨’을 살지 못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나의 존재감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 깊이 수치(존재에 대한)와 두려움(상황과 사람에 대한)에 지배당하면, 즉, “참 사랑 받는 나”가 위축되면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설교 중 보여드린 ppt 참고 - 첨부 파일)

그러면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을 꽃 피워 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1) 위기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셨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6 절).

예수님의 나 됨을 통해 진리의 힘이 발현될 때, 거짓에 종 된 자들이 굴복한다는 상징적 반응입니다.

(2) 8 절.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베드로의 칼을 막으시며 당하는 고난을 맞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폭력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폭력이 진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세상 방식과 차원이 다른 그분 나라의 방법으로 대항하십니다. 자신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나 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의 나 됨의 길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성과 성격이 뚜렷한 나를 이루는 것,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으로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용납하는 나입니다. 사랑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나입니다. 나의 나 됨은 사랑받고 사랑함이 중심이고, 사랑의 방식에 의존한 나를 말합니다.

<맺음>

고난과 죽음은 늘 난제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도 내가 받는 사랑으로 내면의 수치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는 실재의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 속에서의 위기감을 상상해 보세요. 그 때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그니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2.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와 연결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3. 사람이 죄인이라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구원 받은 나는 나의 나 됨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대해 어떤 점이 슬프고, 어떤 점이 자랑스럽습니까? 인간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나의 나 됨'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면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보십시오.